

성장기 기업 ‘지원 절벽’…광주 AI 기업들, 예산·제도 개선 촉구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시비 미확보로 중단 위기…교육 기회 박탈 우려
창업 7년 이상 된 기업 지원책 마련…수익 창출 연결 실질형 교육 필요

광주지역 AI·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초·중등 AI 교육의 기반인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에 필요한 시비 6~8억원을 반드시 지켜달라며 예산 사수를 촉구했다.

국비가 확보된 사업임에도 시비가 매칭되지 않아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하거나, 기업지원이 끊기는 등 ‘지원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이다. 창업 7년이 넘는 성숙 단계 로컬기업을 위한 별도 지원체제와 기초 소프트웨어·빅데이터 인력 양성, 실천 수익 창출형 교육으로 광주형 AI 인재·산업 정책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랐다.

지난 30일 광주시의회 인공지능 실증도시 특별위원회(특위)에 따르면 특위는 지난 2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차 AI기업 조찬간담회’를 열고 교육·콘텐츠 분야 AI 활용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11월 한 달간 이어진 조찬간담회 마지막 회차로, AI 기업과 기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와 정책 제안을 쏟아냈다.

간담회는 교육과 콘텐츠 분야를 주제로 열렸으나, 참석한 60여 명의 기업 및 기관 관계자들은 단순한 기술 논의를 넘어 생존과 직결된 제도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예산 문제였다.

김지흥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초·중등 학생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의 존폐 위기를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내년도 국비는 확보됐지만, 시비 6억~8억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처지”라며 “단순히 사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아동센터나 다문화 가정 등 교육 소외계층의 기회가 박탈되고, 강사들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유리 키움인 이사는 창업 7년 넘는 기업들이 겪는 ‘지원 절벽’ 현상을 토로했다.

정 이사는 “대부분의 지원 정책이 초기 스타트업에 집중돼 있어, 7년 이상 생존하며 성장 궤도에 오른 기업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성숙 단계에 진입한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도약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철현 이스트소프트 전략실장은 기존의 수동적인 교육 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김 실장은 “광주가 AI 집적단지 등을 조성해 놓고 ‘만들어 놔으니 오라’는 식의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며 “직접 학교와 현장으로 찾아가는 능동적인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소년이 직접 문제를 설계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연구·교육(R&E) 모델을 도입해 광주 전체를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수익 창출과 연결되는 실천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현호 퍼니브라운 대표는 “교육이 학습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학생들에게 ‘10만원 벌어보기’와 같은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해 시장의 흐름을 익히게 하는 등 실질적인 경제 활동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기업들의 재무 관리 역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상주 컨설팅 지원, 대학과 기업 간의 인

력 mismatch을 해소할 플랫폼 구축, 콘텐츠 산업 내 AI 도입에 따른 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 등 다양한 현장의 요구가 쏟아졌다.

광주시는 인재 양성 사다리를 더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태조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2027년 개교 예정인 AI 영재고와 AI 사관학교의 교육 수준을 높여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겠다”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예산 및 지원 사각지대 문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수훈 위원장은 “AI 시대의 교육과 산업은 기술 그 자체보다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기업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모아 12월 중 정책 과제로 다듬고,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청소년활동 어워즈 시상식

광주시는 최근 서구 화정동 청소년수련원 청소년극장에서 ‘2025년 광주광역시 청소년활동 어워즈’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자원봉사와 포상제 부문 등 올 한 해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수상의 영예를 안은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상생카드 조기 종료…예산 소진

오늘 선착순 발행 마감…올해 7325억 ‘최대 기록’

‘광주상생카드’가 예산 소진으로 인해 오는 12월 1일 선착순 판매를 끝으로 올해 발행을 마감한다.

지난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시비 430억원을 투입해 추진해 온 상생카드 할인 지원 사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광주상생카드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총판매액은 7325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판매액인 6043억원과 비교해 21%가량 급증한 수치다. 지난 2019년 첫 도입 이후 현재까지 누적 판매액은 5조4000억원에 달했다.

광주시는 지난 1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

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자, 시는 5개 자치구와 협력해 10% 특별할인을 시행했다.

하반기 들어서는 지원 폭을 더욱 넓혔다. 지난 9월부터 할인율을 13%까지 대폭 상향 조정했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는 5%의 캐시백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시민들의 지갑을 여는 데 주력했다. 이와함께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려고 연 매출 5억원 이하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최대 0.75%에 달하는 카드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했다.

광주시는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재충전을 거친 광주상생카드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할인 판매가 재개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문화예술 관람 ‘내돈내산’ 2만원도 안된다

문화예술 구매·대여비용 전국 최저…광주, 문학행사 만족도 최고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한 해 문화예술 관려해서 구매하거나 대여한 비용이 2만원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포함한 매체를 통해 문화예술 행사를 관람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에 담겼다.

지난해 만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문화예술행사를 직접 관람한 비용은 광주 5만2200원·전남 3만3300원으로, 전년보다 광주는 71.4% 증가했고 전남은 45.6% 감소했다.

전국 평균 직접 관람 비용은 5만7200원으로, 1년 전보다 3.2% 늘었다.

광주와 전남은 문화예술 관련 1만원대 구매·대여비용을 쓰고 있었다.

전남 구매·대여비용은 1만5800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었고 광주는 1만9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비용은 3만8200원으로, 2만원이 넘지 않는 곳은 전남과 광주, 제주 세 곳뿐이었다.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평균 횟수는 광주 2.2회, 전남 1.8회로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2.6회)을 넘지 않았다. 광주는 전년(1.8회)보다 늘었지만, 전남은 1년 전(2.5회)보다 줄었다.

문화예술행사를 직접 관람할 때 결립돌로는 광주는 ‘시간 부족’(28.5%)을 가장 많이 꼽았고, 전

남은 ‘가까운 곳에 시설 없음’(30.7%)을 가장 많이 택했다. 문화예술 시설이 없다는 응답률은 전남이 전국 사·도에서 가장 높았다.

매체를 통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했다는 답변율은 광주 66.9%·전남 66.3%로 나타났다. OTT를 이용한 지역민은 광주 50.0%·전남 43.1%이었다.

문화예술행사를 직접 관람했을 때 만족도(7점 만점)를 물어보니 광주는 문학행사가 6.5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남은 5.7점이었으며, 유형별로 보면 ▲미술전시회 광주 6.1점·전남 5.8점 ▲서양음악 광주 6점·전남 6.6점 ▲전통예술 광주 6.3점·전남 5.7점 ▲연극 광주 5.6점·전남 5.8점 ▲뮤지컬 광주 5.8점·전남 5.8점 등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방정가 라온지

“우수 사례 평가 ‘체험 꾸러미 사업’ 예산 복구해야”

류기준 전남도의원 촉구

전남도의회가 ‘체험형 활동 건강 꾸러미 지원사업’의 내년도 예산 복구를 촉구했다.

지난 3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류기준(민주·화순2) 도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내년도 농축산식품 예산안 심사에서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 꾸러미 지원사업’ 예산 12억원이 전액 삭감됐다”며 “이를 재반영해 복지 혜택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험활동 건강 꾸러미 지원사업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찾차·도마 만들기·반려식물 키우기 등 체험형 꾸러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역 농촌융복합기업의 판로 확대도 도모할 수 있어, 복지와 농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우수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는 게 류 의원 설명이다.

류 의원은 “2025년 도민평가단 현장심사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고, 만족도 조사에서 90% 이상 긍정 평가를 받은 사업을 전면 삭감한 것은 현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농업인의 판로 확보를 동시에 실현한 성과 사업으로, 복지 혜택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겨울철 일등보양식

청자골 자라양식장 창업 20주년 특별할인

고단백, 면역력 최고!

자라 엑기스 2개월분

① (12kg + 한약재)
② (12kg + 마늘 생강 대추)

70만원 → 60만원 (10만원 할인)

자라 요리 전문(단체모임환영)
자라탕 용봉탕 / 방생자라 판매

청자골 자라 양식장 | 061-434-0067 / 010-3635-3362
강진군 성전면 별미로 297-52